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2019년 교구장 사목교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 5) -교구의 쇄신-

1.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구설정 50주년이 되는 2019년은 우리 교구민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은총의 해, 곧 희년입니다.(루카 4,16-19 ; 레위 25,8-22 참조) 이제 우리는 교구의 희년을 지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려 합니다. 희년의 기쁨은 지금 여기에서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안동교구사명선언문)는 하느님 나라의 축복을 앞당겨 사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2. 하느님 나라의 축복은 무엇보다도 복음 말씀대로 살면서 누리는 행복인데, 이 행복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여덟 가지 참 행복, 곧 진복팔단(마태 5,3-10)에 들어 있습니다. 이 진복팔단의 말씀대로 살자는 다짐은 우리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이셨던 두봉 주교님께서 취임사를 통해 전 교구민들에게 부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진복팔단의 정신대로 살면 분명히 참된 행복을 누리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안동교구의 사목표어이며 교구사명선언문의 제목인 “기쁘고 떳떳하게”라는 표현 안에, 우리 교구는 초대 교구장님의 이러한 믿음과 확신

을 담아 두었습니다. 따라서 “기쁘고 떳떳하게”라는 표현을 풀이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 목적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복음 정신대로 살아가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사명선언문은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제자리를 찾고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구는 신앙생활의 궁극 목적인 참된 행복을 위해 복음 정신에 따른 교구사명선언문을 지난 2003년 교구 사제단과 평신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교구의 사목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교구사명선언문은 우리 교구가 50년 동안 살아온 공동체 형성과정의 결실이며,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삶을 응축한 것입니다. 따라서 멋지게 만든 우리 교구의 사명선언문은 입으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구의 행복 비전

4. 지금 우리는 “기억, 감사 그리고 다짐”이라는 슬로건으로 교구설립 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교구, 작은 교구, 가난한 교구로 정의되기도 하는 우리 교구는 타 교구에 비해 열악한 조건이지만 초창기부터 이러한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이러한 열악한 조건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는 분명 기억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교구의 행복과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의 영성>, <열린 교회 사목>, <공동체 사목>입니다. 농촌교구이자 가난한 교구이기 때문에 ‘가난의 영성’을 살 수 있었고, 작은 교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열린 교회 사목’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마음만 있으면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보다 더 쉽게 헤아릴 수 있어서, 우리는 나누고 섬기며 함께 사는 기쁨을 보다 구체적으로 익혀 왔습니다.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이러한 ‘공동체 사목’은 교구의 사목 전통 속에서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 교구의 특징이자 특별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그리고 우리 교구는 농촌 교구로서 설립 초기부터 특별히 농민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농민들의 살 권리를 알리고 되찾아 주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에 대한 특별한 사목적 배려는 인권운동과 대사회 참여운동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둡고 혼란하던 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어진 여건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하는 가운데 참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교구가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열린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구의 쇠신

6. 안동교구는 지난 2002년 '새 교구장을 맞이하여 드리는 기도'에서 안동교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네 가지를 기도문에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교구사명선언문에 담긴 정신적 가치와 공유되는 부분도 있고, 교구 설정 40주년을 지내면서 연차별(2007-2010)로 교구 사목방향으로 설정해 사목교서에서 언급한 내용이기 에 지금은 자연스럽게 교구사명선언문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열린 교회>,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작은 것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서로 나누고 섬기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 교구가 살아왔던 모습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 교구가 앞으로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적응하고 구현해나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교구의 쇠신'을 얘기할 때에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교회의 쇠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구의 쇠신'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재발견되고 되살안다면 '교구의 쇠신'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7. 교구사명선언문의 어떤 내용이 바람직한 교회의 네 가지 모습과 연결되는지 한 번 살펴봅시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명선언문의 정신이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소박하게 살고"라는 사명선언문의 정신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교구사명선언문의 정신이 "작은 것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살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함께 사는 교구사명선언문의 정신은 "서로 나누고 섬기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로 살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교구사명선언문이 지향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교구의 쇠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쇠신도 함께 이루어낼 것입니다.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8. <우리는/ 이 터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안동교구 사명선언문의 내용입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사는 교구민 각자의 신앙생활의 궁극 목적인 참된 행복이 교구 사명선언문의 내용 하나 하나에 구체적인 삶의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삶이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는 하느님 나라의 축복을 앞당겨 사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9. 우리 교구는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으며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 5)는 말씀아래 쇄신 운동을 펼쳐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다짐을 교구 사명선언문을 바탕으로 각 계층별로 자기 사명선언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는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지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될 것입니다. 안동교구 사제, 수도자, 평신도 혹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구 사명선언문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자기 사명선언문이 될 것입니다.

10.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과거 교회의 잘못에 대한 고백을 하며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 역시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제는 사제로서, 수도자는 수도자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제대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 잘한 것이 있다면 함께 격려하며 박수를 쳐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함께 가슴을 칠 줄 알아야 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모든 일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각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함께 노력하여 다시 한 번 더 세상 사람들에게 ‘안동교구답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이는 곧 지금 여기에서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는 교구사명선언문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 하느님 안에서 우리 교구의 희년과 교구의 쇄신을 통하여 우리는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2018년 12월 2일 대림 제1주일



천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스토포모 주교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약속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자신과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간에는 늘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외적 환경과 내적 존재의 불완전성을 뛰어넘어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초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오늘의 전례에 참여합시다 .

입당성가 : 91번 ‘구세주 빨리오사’

본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예레미야서 33장 14절-16절

안 내 : 주님께서서는 약속하신대로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십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서는 약속하신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세상에 정의와 공정을 펼치시고 사람들은 주님이 "정의"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화 답 송 :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제2독서 : 테살로니카 1서 3장 12절-4장 2절

안 내 :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묵 상 :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랑을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어 하느님 앞에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설수 있게 하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21장 25절-28절.34절-36절

강 론 : '2019년 교구장 사목교서'(1-4쪽)

예물준비성가 : 513번 '면병과 포도주',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성가 : 496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502번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영성체 후 묵상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재난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상기하고 회개했습니다.

또한 우리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방탕을 경험할 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환경의 혼란과 내적인 혼란의 소용돌이 때문에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 속을 헤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88번 '임하소서 구세주여'

※ 공소사목 성금

조성모 50,000원

김득순 10,000원

황영준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5,42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교구주보 『가톨릭 안동』 창간

- 2019년 1월 6일부터 교구주보 「가톨릭 안동」이 발간됩니다. 아울러 공소사목은 폐간되며 개인배송은 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사목국 054-858-3114

■ 열린성경강좌 8

- 일시 : 12월 10일(월) 19:30 ~ 21: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천원

■ 공소봉사자 연수

- 일시 : 12월 7일(금) 13:30 ~ 8일(토) 점심
- 장소 : 농은수련원
- 회비 : 1인 25,000원

■ 여학생 수도 성소자 모임

- 안동/북부지구
12월9일(주일) 14:00/휴천동성당
- 상주/문경지구
12월16일(주일) 14:00/모전동성당

■ 예비신학생 피정 및 종강미사

- 일시 : 12월 15일(토) ~ 16일(주일)
(파견미사 : 오후 2시)
- 장소 : 농은수련원

■ 초등부 복사단 연수

- 일시 : 1월 3일(목) 14:00 ~ 4일(금)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목주, 복사복(개인별), 복사복 입고 찍은 세로 사진 1장
- 참가비 : 1인 3만원
- 신청마감 : 12월 14일(금)까지 사목국으로

■ 교구설정 50주년 관악단원 모집

- 기간 : 11.25(주일) ~ 2019.3.3(주일)
- 대상 : 관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분,
관악기를 배우고 싶은 분
- 문의 : 김희정 글라라 010-3804-3824

■ 대림 특강

- 주제 : 교황의 방북과 한반도의 평화 번영
- 강사 :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일시 : 12월 14일(금) 19:30
- 장소 : 주교좌 목성동 성당
- 주관 : 안동지구 사목회

■ 꾸르실료 월례미사

- 일시 : 12월 17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청년연합회 합동미사 및 총회

- 일시 : 12월 9일(주일) 15:00 ~ 20:00
미사 16:30
- 장소 : 상주 남성동 성당

■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 신·구약 성경입문(2년)
- 문의 : 02)944-0819~24/0840~2(이러닝)

■ 향심기도 2박 3일 심화피정

- 일시 : 12월 7일(금) ~ 9(토)
- 장소 : 평화계곡 피정의집
- 회비 : 14만원
- 신청 : 010-3422-7587

■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 캠프

- 일시 : 2019년 1월 4일(금) ~ 1월 6일(주일)
- 대상 : 중학교 1-2학년
- 비용 : 15만원
- 장소 : 양업고등학교 043-260-5078

■ 갈전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판매사업

- 영양토마스 고춧가루 20% 할인 판매
- 영양 토마스 고춧가루 가격
보통맛 1kg 30,000원/매운맛 1kg 31,000원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3813-4405
- 전통방식으로 만든 메주 판매 : 1장 2만원
- 상담 및 주문 : 임점녀 노엘라 010-3251-5052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 교구주보 '가톨릭안동' 광고주 모집

- 교구주보에 광고를 원하시는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 문의 : 사목국 054-858-3114



똥이와 비교해 보기

이춘희 테클라
(안동가톨릭문인회)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집, 그 속에서는 매일 낮밤으로 구슬픈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마치 잃어버린 부모를 애타게 찾는 듯한 울음소리! 폐지를 주위 생계를 이어가던 늙은 아저씨의 반려견 ‘똥이’라는 강아지의 울음소리다.

어느 깊은 여름밤, 아저씨네 집에는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했고, 당시 잠을 자고 있던 아저씨는 정신을 잃어 119에 실려 갔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 아저씨네 유일한 가족 똥이라는 강아지는 목줄이 매인 채 집 마당에서 홀로 그 무서운 시간을 견뎌야 했다. 마침, 화재 진압 막바지에 소방관 아저씨에게 발견된 강아지는 소방관 아저씨의 손에서 목줄이 풀려 구출되었다. 갑작스레 일어난 화재로 인해 사라진 주인을 찾으려고, 그동안 살아왔던 보금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매일 밤 강아지는 절룩거리는 다리를 끌며, 잿더미가 되어버린 곳에서 아저씨의 흔적을 찾으며 울부짖고 있었다. 다시 그 악몽의 현장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주인아저씨에 대한 그리움이다. 가난했지만, 똥이를 자식처럼 사랑하며 아껴준 아저씨의 사랑이 가득한 곳, 똥이의 보금자리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잿더미 속에 아저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잿더미 위에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목청을 높여 매일 울부짖고 있던 강아지를 차마 보고 지나 칠 수가 없었던 동네 주민들의 도움으로 주인아저씨를 찾아주기로 하였다.

7년을 넘도록 강아지와 함께 살아온 주인아저씨는, 전신 3도 화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어 강아지를 미처 챙길 수 없었던 아저씨, 평소 자식같이 여기던 유일했던 가족인 똥이를 아저씨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아저씨는 주변의 도움의 손길로 똥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부상당한 몸으로 잿더미가 된 집에서 홀로 간절하게 아저씨를 기다리며 울고 있는 똥이의 영상을 보고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터트렸다.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몸을 치료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고의 충격과 아저씨에 대한 그리움으로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있었다.

아저씨는 똥이를 만날 수 없었지만, 아저씨의 목소리를 녹음해 똥이에게 들려 줄 수 있게 되었다. 음식을 코앞에 두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똥이에게, 아저씨의 녹음 음성을 들려 주었더니 똥이가 즉각 반응을 한다. “똥이? 저기 바람 쐬러 가자! 똥이야! 밥 먹자.” 하는 아저씨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그때서야 밥을 먹기 시작하는 똥이, 똥이는 그리운 아저씨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아저씨와 똥이는 건강을 점차 회복하였고, 드디어 아저씨와 똥이가 재회 할 수 있게 되었다. 3개월 만에 처음 만나는 아저씨와 똥이. 아저씨는 아직 완쾌되지 않은 몸으로 똥이의 집을 만들어 주었고, 이런 애달픈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게 된 아저씨와 똥이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진 것이다. 여러 따뜻한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저씨와 똥이가 살 새로운 보금자리, 힐링하우스가 마련되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요한 10,27)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과 똥이의 이야기를 비교해 본다. 나는 얼마만큼 주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똥이라는 강아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그렇게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보여 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살아가야겠다고 똥이와 비교해보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본다.